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이 희 연†

가천대학교 세살마을 연구원

정 미 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432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결과,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우울수준이 양육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유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취업모의 우울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므로 전업주부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어머니의 우울수준, 양육효능감, 유아의 정서적 공감, 다중집단분석

* 본 연구는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1A3A2925502).

† 주저자: 가천대학교 세살마을 연구원 발달클리닉 연구교수

‡ 교신저자 :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E-mail : mrchung@gachon.ac.kr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는 삶의 기초이자 성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은 인간의 성장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유아기에 다양한 사회적 접촉 방법이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등 사회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들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수용능력과 이타적 행동의 발현은 유아의 공감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것으로, 공감은 유아기 유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만 3-5세의 유아기는 자기중심적 공감단계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 지향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즉 이 시기는 유아기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 필수 역할을 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천우영, 2016). 그런데 우리사회는 해가 갈수록 유아·아동의 공감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행동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권기남, 2017). 공감은 폭력성, 반항성, 분노와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 핵심기제가 되고, 불안과 우울, 위축과 같은 내현화된 행동문제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이연희, 2017). 따라서 공감능력 결여는 심리정서적 문제행동과 관련을 가지며, 유아기의 문제는 이후 청소년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이정혜, 2004; Lovett & Sheffield, 2007) 더욱 주목해야 한다.

최근 공감의 요인에 대해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정서적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를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인지적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Jolliffe & Farrington, 2006).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관여하는 신경 체계가 다르고 사회적 행동에도 상이한 영향을 준다(박민, 2012). 특히 공격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공감의 영향에서 정서적 공감과 행동문제 간 관련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남아는 비교집단에 비해 정서적 공감수준이 더 낮았고(Shechtman, 2002), 정서적 공감과 또래 괴롭힘 행동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Jolliffe & Farrington, 2006).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공감의 발달이 모-아 관계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영아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돌봄을 경험하며 공감능력을 기르게 된다(Decety, Norman, Berntson, & Cacioppo, 2012). 따라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 인지, 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도의 매개역할에 의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김경은,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 중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증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울증상은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비롯하여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Davion,

Johnson, Kring, & Neale, 2010/2012).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부부관계 및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정생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박희진, 문혁준, 2013). 많은 기혼 여성이 산전, 산후 일시적인 우울감을 비롯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높으면 양육행동이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양육행동이 부정적이고, 상호작용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행동을 규제하고, 정서적 관여가 적으며, 비효율적인 훈육을 한다(김말경, 박혜원, 2008; 이인경, 이완정, 2014; 정지연, 2008; Leung & Slep, 2006). 부모가 아동의 고통이나 슬픔을 무시하거나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면,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을 알아채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지연, 곽금주, 2010).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이란 주양육자가 스스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며,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양육효능감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양육의 질을 선행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우울 증상과 자녀의 심리정서 발달과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인지적 변인이다(이주연, 2010).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연, 2012; O'Neil, Wilson, Shaw, & Dishion, 2009). 최근에는 어머

니의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직접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나 낮은 양육효능감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김정미, 2017). 마찬가지로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김미숙, 문혁준, 2005; Holditch-Davis et al., 2014), 나아가 자녀가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하, 서소정, 2012).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증상은 어머니의 인지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한다(Dodge, 199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기 전반적 기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 유아의 사회, 정서문제 및 부적응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이 검증되어 왔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만성적인 우울은 유아의 감정, 인지, 대인 간 뇌기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후 아동기 사회 정서적 문제 유발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Goodman & Tully, 2006;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반면에 어머니의 우울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김춘경, 조민규, 2017; Miller, Cowan, Cowan,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3). 이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특히 유아의 공감 능력에 대한 영향은 검증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정서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기혼여성들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공통적인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양육에 대한 신념 및 양육행동,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검증해왔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기회가 늘어감에 따라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 제반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취업모의 경우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제반 여건 부족(이재경, 2006), 일과 가사의 이중역할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므로(박정희, 유영주, 2000) 비취업모 보다 더 우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경제적 소득으로 인해 생활 만족이나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입장도 있다(Greenhaus & Powell, 2006). 이런 경우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백종화, 박성연, 2002)고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어 무력감이 강화되고 심리적 문제들이 더욱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이수영, 조옥귀, 2000)고 보았다. 반면에 비취업모는 자신의 개인적 목표 성취보다는 자녀 양육이나 주변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중시하고,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나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에 취업모보다 우울함을 더 느끼게 된다(박정희, 유영주, 2000)는 결과도 있다. 또한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은 부모로서 자신감을 떨어뜨려 효능감도 낮다(안지영, 2000; 정혜인, 2003)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심리적 건강과 양육에 대한 신념이 다를 수 있다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영향도 다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문제를 확인한 결과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진, 2004; 한민숙, 2001). 반면에 어머니의 취업형태에 따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영향은 차이가 없어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유아 행동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 양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오미숙, 유연옥, 2014).

이와 같이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은 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취업 유무에 따라 우울증상이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종합하면, 어머니의 우울증상은 부정적 심리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비 일관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모-아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경은, 2011; 현명호, 박지선, 2003; Misri et al., 2010). 특히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어린 자녀에게 발생할수록 아동의 공감능력을 비롯한 심리 정서발달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Cornish et al., 2005). 예를 들면, 어머니의 우울증상은 자녀의 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영아의 경우 무기력하거나, 먹고 자는데 어려움이 있고, 슬픈 표정을 짓거나, 부주의 하고 짜증이 많으며, 정서적 반응이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옥, 2014). 때문에 영유아기 어머니의 심리, 정

서적 상태를 포함한 양육환경은 영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erk, 2009). 특히 어머니의 우울감은 자녀의 사회적 유대와 적응의 근간이 되는 공감능력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신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N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1	.2	425
		고등학교 졸업	63	14.8	
		2, 3년제 대학 졸업	113	26.6	
		4년제 대학교 졸업	195	45.9	
		대학원 졸업	53	12.5	
	직업	취업	209	48.4	432
		비취업	223	51.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2	2.8	424
		200만원-400만원 미만	120	28.3	
		400만원-600만원 미만	158	37.3	
600만원-800만원 미만		84	19.8		
800만원 이상		50	11.8		
유아	성별	남	235	57.5	409
		여	174	42.5	
	연령	만 3세	140	32.5	431
만 4세	154	35.7			
만 5세	137	31.8			

는 유아 어머니 432명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 어머니 가운데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 유아 부모이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95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2, 3년제 대학 졸업이 113명(26.6%), 고등학교 졸업 63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209명(48.4%), 비취업모는 223명(51.6%)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158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120명(28.3%), 600만원-800만원 미만이 84명(19.8%)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235명(57.5%), 여아 174명(42.5%)이며, 만 4세가 154명(35.7%), 만 3세 140명(32.5%), 만 5세 137명(31.8%)로 비슷하였다. 우울증상 기준과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우울의 절단점(cut-off point)은 16점이지만,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21점 기준으로 하여(조맹제, 김계희, 1993)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머니는 30명(6.94%)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측정 도구

우울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의 하위영역 가운데 우울감정은 우울, 침체된, 외로운, 슬픈 감정

의 정도를 의미하며, 긍정감정은 좋은, 희망적인, 행복한, 즐거운 감정의 결여정도이며, 신체 및 행동 둔화는 내키지 않거나, 식욕, 노력, 수면, 움직임의 둔화정도이며, 대인관계는 비우호적인, 싫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4점 척도로 0점에서 3점까지고, 0점에서 최대 60점이며, 우울감정 7문항, 긍정적 감정 4문항, 신체 및 행동둔화 7문항, 대인관계 2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단점(cut-off-point)을 21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역경향성 문항은 모두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우울감정 .76, 긍정적 감정 .65, 신체 및 행동둔화 .76, 대인관계 .60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총점은 .89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Meunier과 Roskam(2009)가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했던 EGSCP(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를 백지희(2011)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은 5점 척도로 1점에서 5점까지고, 훈육 5문항, 놀이 5문항, 애정 5문항, 일상체계 조직 4문항, 교육 3문항 총 22문항이다. 총점의 범위는 22점에서 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양육효능감의 훈육 .76, 놀이 .83, 애정 .81, 일상체계조직 .74, 교육 .82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

유아의 정서적 공감을 알아보기 위해 Auyeung 등(2009)이 개발한 EQ-C 척도를 고

회갑, 심숙영, 임선아(2015)가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EQ-C는 정서적 공감, 사회적 반응, 인지적 공감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 행동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정서적 공감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이며, 5점 척도로 1점에서 5점까지고, 7점에서 최대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앞서, 2017년 2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명과 유아교육 전문가 4명에게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응답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한 교사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사를 통해, 담당하는 유아 1명부터 최대 8명까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밝힌 후 참여한 47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3월부터 8월까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으며, 본 연구가 취업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인 만큼, 취업유무를 체크한 445부(94.3%)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32부(91.5%)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로 알아보았으며, 각 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왜도(skewness)의 절대 값 3점과 첨

도(kurtosis)의 절대 값이 10을 넘지 않을 경우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Kline, 2010).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이하 CFA)을 통해 측정모형을 알아보았으며,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이하 SEM)으로 구조모형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위해 χ^2 값을 비롯한 SRMR, NFI, IFI, TLI, CFI, RMSEA 등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χ^2 값을 위해 임계치($p>.05$)를 비교하였으며, SRMR은 $\leq .05$ 이면서, NFI, IFI, TLI, CFI는 $\geq .90$ 이며, RMSEA는 $\leq .08$ 여부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95%신뢰구간에서 양측검정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취업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만큼, 측정동일성을 위해 형태동일성, 요인계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영향력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검토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기 전 측정변인인 우울의 우울감정, 긍정적 감정(역), 신체 및 행동둔화, 대인관계 및 양육효능감의 혼욕(역), 놀이, 애정, 일상체계조직, 교육과 유아 정서의 정서적 공감 변인의 상관분석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울의 신체 및 행동둔화 총점이 5.09($SD=2.33$)로 가장 높았으며, 우울감정($M=3.60$,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N=432)

변인	1	2	3	4	5	6	7	8	9	10
우울										
1. 우울감정	1									
2. 긍정적 감정(역)	.38**	1								
3. 신체 및 행동둔화	.53**	.39**	1							
4. 대인관계	.22**	.16**	.23**	1						
양육효능감										
5. 혼육(역)	-.14**	-.12*	-.27**	-.17**	1					
6. 놀이	-.17**	-.06	-.16**	-.07	.34**	1				
7. 애정	-.07	-.04	-.17**	-.17**	.46**	.48**	1			
8. 일상체계조직	-.01	-.10*	-.18**	-.12*	.39**	.26**	.28**	1		
9. 교육	-.09	-.08	-.20**	-.15**	.49**	.40**	.44**	.47**	1	
정서적 공감										
10. 정서적 공감	.00	.07	.00	.02	.20**	.07	.22**	.11*	.12**	1
총점(total)	3.60	3.14	5.09	.21	17.75	17.70	19.56	15.45	11.80	24.85
(취업/비취업)	3.69/3.51	3.20/3.09	4.99/5.18	.20/.21	18.15/ 17.37	17.72/ 17.69	19.66/ 19.46	15.38/ 15.52	11.92/ 11.69	24.94/ 24.78
표준편차(SD)	2.43	1.34	2.33	.61	3.03	3.56	2.70	2.35	1.87	3.51
(취업/비취업)	2.60/2.26	1.42/1.26	2.16/2.48	.57/.65	2.91/3.11	3.58/3.55	2.61/2.77	2.33/2.38	1.79/1.94	3.38/3.64

* $p < .05$, ** $p < .01$

SD=2.43), 긍정적 감정(역)(M=3.14, SD=1.34), 대인관계(M=.21, SD=.61)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우울의 총점은 12.08점이었으며, 비취업모는 11.99점으로 취업모의 우울수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t=.184, p=.854$) 집단 간의 우울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양육효능감은 애정(M=19.56, SD=2.70)이 가장 높았으며, 혼육(역)(M=17.75, SD=3.03), 놀이(M=17.70, SD=3.56), 일상체계조직(M=15.45, SD=2.35), 교육(M=11.80, SD=1.87)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적 공감의 총점은 24.85(SD=3.51)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유아의 정서적

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울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효능감의 혼육(역)($r=.20, p < .01$), 애정($r=.22, p < .01$), 일상체계조직($r=.11, p < .01$), 교육($r=.12, p < .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놀이($r=.10, p > .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으로 상정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CFA를 실시하였다. 측정변인

인 유아의 정서적 공감 변인을 제외한 우울과 양육효능감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X^2=73.816(df=26, p=.000)$, SRMR=.0483, RMSEA=.065(.048-.083), NFI=.914, IFI=.943, TLI=.919, CFI=.942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의 표준화계수(β)는 .319부터 .781범위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의 표준화계수(β)는 .548부터

.720범위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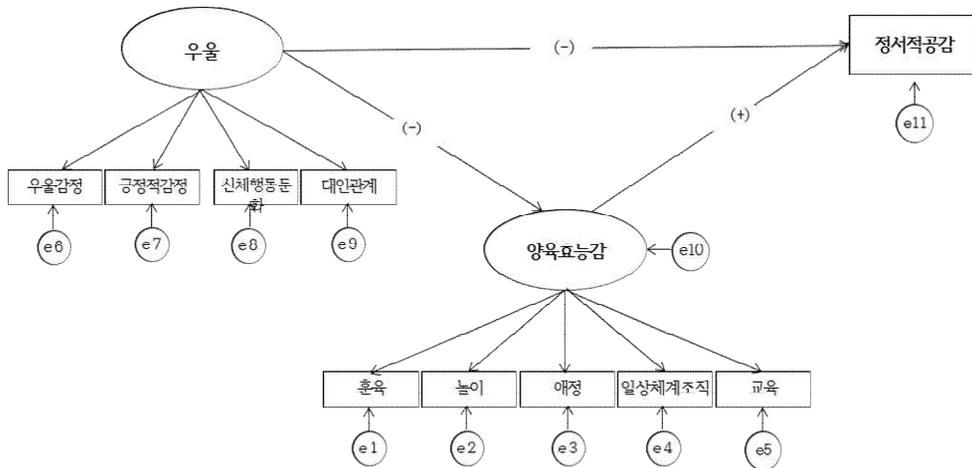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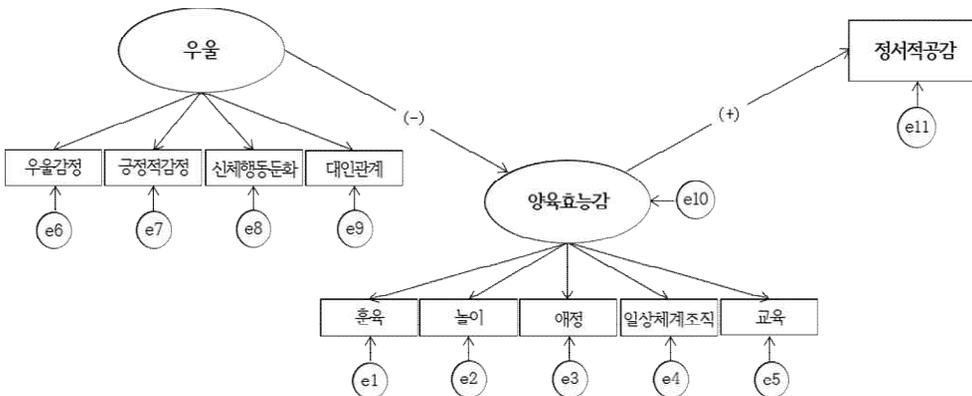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

표 3.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의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p	$\Delta\chi^2(\Delta df)$	SRMR	TLI	CFI	RMSEA(LO/HI)
[그림 1] 연구모형	87.461	33	2.650	.000	-	.0468	.912	.936	.062(.046/.078)
[그림 2] 대안모형	90.965	34	2.675	.000	3.50(1)	.0498	.911	.933	.062(.047/.078)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87.461(df=33, p=.000, \chi^2/df=2.650)$, $RMSEA=.062(.046\sim.078)$, $SRMR=.0468$, $TLI=.912$, $CFI=.936$ 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90.965(df=34, p=.000, \chi^2/df=2.675)$, $RMSEA=.062(.047\sim.078)$, $SRMR=.0498$, $TLI=.911$, $CFI=.933$ 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살펴보면, 우울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2, p>.05$).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최종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330, p<.001$)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beta=.22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보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한 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효능감은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과 상한에(-.111~-.040)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beta=-.075, p<.05$). 즉, '우울 → 양육효능감 → 정서적 공감'으로 영향을 주는 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CR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CR	
우울 →	양육효능감	-.430	-.337***	.092	-4.696	-.419	-.330***	.091	-4.607
	정서적 공감	.241	.112	.130	1.847				
양육효능감 →	정서적 공감	.458	.273***	.101	4.535	.383	.227***	.092	4.16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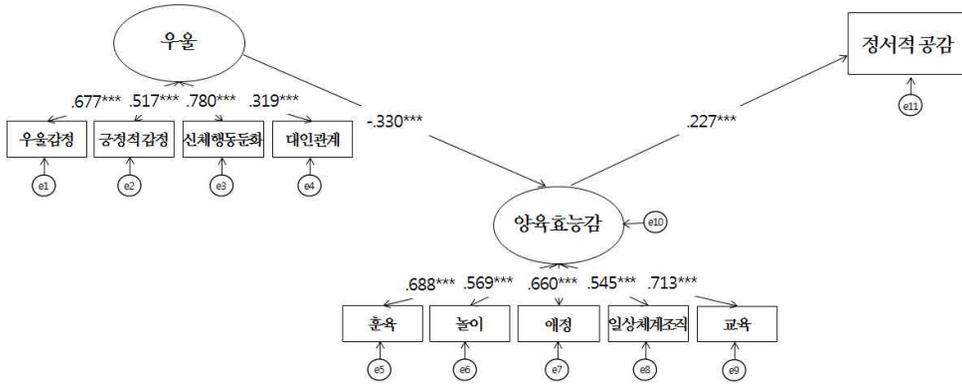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표 5.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표준화 계수(β)
우울 → 양육효능감 → 정서적 공감	-.160	.022	-.111 ~ -.040	-.075*

* $p < .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에 앞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과 요인계수 동일성을 표 6에 제시하였다.

모형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무제약 모형과 요인계수를 제약한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모형

간의 χ^2 차이 값이 11.544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 취업 유무 간의 측정동일성이 있음이 검증된 결과이다.

다음은 어머니의 취업유무 간에 어떤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 대응별 모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우울 → 양육효능감’의 CR값이 -2.161로 나타나 ± 1.96 이상으로 확인되어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의 취업유무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

표 6.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p	χ^2/df	$\Delta\chi^2$	Δdf	TLI	CFI	RMSEA(LO/HI)
형태동일성	128.401	68	.000				.908	.930	.045(.033-.057)
요인계수 동일성	139.945	76	.000		11.544 ($p = .173$)	8	.913	.926	.044(.033-.056)

표 7. 경로계수 비교

경로	취업		비취업		$\Delta X^2(\Delta df)$
	비표준화(B)	표준화(β)	비표준화(B)	표준화(β)	
우울 → 양육효능감	-.219	-.200***	-.599***	-.428***	4.56(1)*
양육효능감 → 유아 정서	.312	.163*	.412***	.261***	.26(1)

* $p < .05$, *** $p < .001$

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경로계수의 차이는 X^2 차이 값을 기초로 확인하는데,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을 제약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의 X^2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X^2=4.56$, $\Delta df=1$, $p=.033$).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 어머니인 경우 취업한 어머니에 비해 우울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의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다집단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촉발시키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김영미, 김정미,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해주었을 때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졌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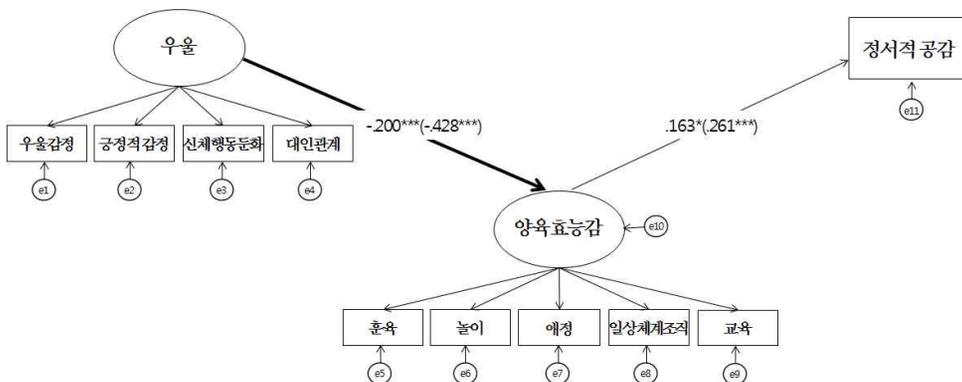


그림 4. 다집단 분석

(Holditch-Davis et al., 2014),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영아의 기본생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이경하, 서소정, 2012)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 역할에 대한 낮은 평가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을 높이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제시하며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손금분(2011)과 Ardelit와 Eccles(2001)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즉, 부모 우울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수준이 자녀의 공감능력을 비롯한 정서발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심리치료와 교육 분야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는데, 만 3-5세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해 집단으로 실시한 성인 놀이치료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 증진으로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 등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문현영, 한유진, 2016).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는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증진되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이 나타났다(송미경, 이은경, 신

효정, 2009).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개입을 우선으로 하여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선희와 박승호(2015)는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동, 어머니, 사회, 가족 측면에서 효능감을 저하 또는 증진시키는 요인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 기대수준의 조절, 낙천적 사고가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가족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증진, 가족 구성원의 협력 등이 효능감 증진에 관한 요인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이에 초점을 두어 부모 교육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비취업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우울수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의 수준 보다 양육효능감이 기혼 여성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취업모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가정 이외에 사회와 단절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신희석, 2002) 이 때문에 보다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고, 취업모의 경우 직업활동과 자녀양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요구받는데 따른 스트레스가 심리적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박현남, 2014). 그러므로 취업여부 자체가 어머니의 우울을 변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물

론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울한 어머니 자신과 관련된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 비취업모의 경우 우울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가 양육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가 직장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경제적 소득으로 인해 생활의 만족이나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하는 어머니로서의 여러 역할이 오히려 심리적 만족감과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과(Greenhaus & Powell, 2006)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심리정서적인 측면이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비취업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비취업모가 자녀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이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안지영, 2001).

전업주부의 활동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역할 수행에 따르는 보상을 적게 느낀다. 김혜원(1997)은 비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주부들이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그들의 현재역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역할 태도와 일치할 때 보다 행복감과 심리적 건강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결혼만족도 또한 그들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조금숙, 조증열, 2004)고 하여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 수행,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심리, 교육적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영향에서 양육효능감 개선의 노력으로 유아의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비취업모의 경우 우울증상이 양육의 효능감을 보다 더 낮게 인식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취업모보다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밝힌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의 증상 완화와 함께 양육태도 개선 및 자녀의 심리 정서적 발달을 위한 심리치료적 또는 교육적 차원의 활용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임상집단이 아닌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정희, 유영주, 2000; 조맹제, 김계희, 1993) 결과보다 우울수준이 총점 기준 2-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구 경제의 취약성은 가구원의 우울감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성준모, 2010), 본 연구대상 집단은 신도시에 거주하며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취약집단의 경우 우울수준이 높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녀의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요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의 영향을 비롯하여 자녀의 공감능력 향상에 관한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의 시도는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특성들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어 많은 연구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우울수준 차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희갑, 심숙영, 임선아 (2015). 유아용 공감 척도 (EQ-YC) 타당화 예비연구. *아동교육*, 24(1), 59-80.
- 권기남 (2017). 유아의 정서적·인지적 공감 및 또래 유능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8(1), 217-231.
-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말경, 박혜원 (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K-BSID-2 수행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1), 243-255.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미연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과 어머니 효능감과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김정미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 김춘경, 조민규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 김현옥 (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9, 171-195.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 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문현영, 한유진 (2016).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성인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놀이치료 연구*, 20(1), 47-67.
- 박민 (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정신병리와 심리재활에의 함의.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 박정희, 유영주 (2000).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5-174.
- 박희진, 문혁준 (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 81-98.
- 백종화, 박성연 (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백지희 (2011).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경험을 위한 목표, 피드백, 동기: 양육플로우 경험의 매개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준모 (2010).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109-132.

- 손금분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모자간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경, 이은경, 신효정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0(3), 1627-1643.
- 신희석 (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5.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숙, 유연옥 (2014). 어머니의 모 애착, 유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관계. 과학논집, 40, 93-107.
- 이경하, 서소정 (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이수영, 조옥귀 (2000). 공동연구: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수준의 비교. 인문논총, 13(단일호), 45-65.
- 이연희 (2017). 정서 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에 미치는 미시체계 구조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경, 이완정 (2014).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우울감이 영아를 위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8(4), 669-687.
- 이정혜 (2004). 아동의 공격성 유발요인에 대한 대상관계이론적 관점. 상담학연구, 5(4), 1155-1168.
- 이재경 (2006). 저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여름호.
- 이주연 (2010). 영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 43-61.
- 이지연, 박금주 (2010). 5 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 정지연 (2008).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자기 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인 (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금숙, 조중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27-41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혜진 (2004).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우영 (2016). 교사용 유아 공감능력 검사도구의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선혜, 박승호 (2015). 자폐성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자폐성장애연구, 15(1), 87-120.
- 한민숙 (2001). 한국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식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보육시설과 보육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명호, 박지선 (2003).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

- 우울간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6, 75-88.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1521.
- Berk, L. (2009). *생애발달[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이현진, 김혜리, 이옥경, 박영신, 정윤경, 김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6년 에 출판)
- Cornish, A. M., McMahon, C. A., Ungerer, J. A., Barnett, B., Kowalenko, N., & Tennant, C. (2005). Postnatal depression and infant cognitive and motor development in the second postnatal year: The impact of depression chronicity and infant gender.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8(4), 407-417.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Davion, G. C., Johnson, S. L., Kring, A. N., & Neale, J. M. (2010). *이상심리학* (이봉건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Decety, J., Norman, G. J., Berntson, G. G., & Cacioppo, J. T. (2012). A neurobehavioral evolutionary perspective on the mechanisms underlying empathy. *Progress in Neurobiology*, 98(1), 38-48.
- Dodge, K. A. (199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3-6.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Goodman, S. H., & Tully, E. (2006). Depression in women who are mothers. *Women and depression: A handbook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241-280.
- Holditch-Davis, D., White-Traut, R. C., Levy, J. A., O'Shea, T. M., Geraldo, V., & David, R. J. (2014). Maternally administered interventions for preterm infants in the NICU: Effects on maternal psychological distress and mother-infant relationship.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7(4), 695-710.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4), 589-611.
- Keyes, C. L., & Goodman, S. H. (2006). Depression in women who are mothers. In Goodman, S. H., & Tully, E., *Women and depression: A handbook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Eds., pp. 241-2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Leung, D. W., & Slep, A. M. S.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524-534.
- Lovett, B. J., & Sheffield, R. A. (2007). Affective empathy deficits in aggressive children and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1), 1-13.
- Meunier, J. C., &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5), 495-511.
- Miller, N. B., Cowan, P. A., Cowan, C. P.,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93). Externalizing in preschoolers and early adolescents: A cross-study replication of a family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3-18.
- Misri, S., Kendrick, K., Oberlander, T. F., Norris, S., Tomfohr, L., Zhang, H., & Grunau, R. E. (2010). Ante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ffect postpartum parenting stress: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4), 222-228.
- O'Neil, J., Wilson, M. N., Shaw, D. S., & Dishion, T.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ffica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diverse sample of low income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6), 643.
- Radloff, L. S. (199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hechtman, Z. (2002).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aggressive boy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4*(4), 211-222.
- 1차원고접수 : 2018. 01. 22.
심사통과접수 : 2018. 02. 20.
최종원고접수 : 2018. 03. 04.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Efficacy on Preschoolers' Affective Empathy: Multi-Group Analysis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Hee Yeon Yi

Gachon University Sesalmaul research Center

Mi Ra Chung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affective empathy of preschoolers and to analysis the difference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It was confirmed as a final model. 432 mothers of preschoolers were participated to examine of this relationship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depressive symptoms were found to be complete mediated by the parenting efficacy in the preschoolers affective empathy. Second, as a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the partial moderating effect was proved that the depressive symptoms had a influence on the parenting efficacy in non-working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ay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affective empathy of preschoolers and positively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preschoolers through mediation of parenting efficacy. In addition, the effect of non-working mothers' depressive symptoms on parenting efficacy is greater, suggesting that active housekeeping intervention should be sought.

Key words :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efficacy, preschooler's affective empathy, multi-group analysis